

언론 사람

04
2021
VOL.250



04 창립 40주년 특집
위원회 40년사 한눈에 보기

08 인터뷰 人+人
양삼승 변호사

10 Newmedia of the World
빅테크(Big tech)는
왜 뉴스레터에 뛰어드나

12 세상사는 法
우리가 좀더
예민해져야 하는 이유

Contents

2021 April

03

창립 40주년 기념사

04

창립 40주년 특집

위원회 40년사 한눈에 보기

06

창립 40주년 특집

위원회 40주년 축하 메시지

08

인터뷰 人+人

양삼승 변호사

10

Newmedia of the World

빅테크(Big tech)는 왜 뉴스레터에 뛰어드나

12

세상사는 法

우리가 좀더 예민해져야 하는 이유

14

돋보기

어느 시인의 귀향 소감

16

이달의 시

봄날이어서 가능한 비현실의 꿈길

18

단어의 중력

공포

20

내 마음의 활동사진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빛과 철'

22

NEWS

위원회 뉴스·위원 동정

23

키워드로 보는 40년사

어린이 홈페이지

발행인 이석형

편집인 조준원

발행일 2021년 4월 1일

등 록 2016년 9월 23일 서울중, 라00646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

T 02-397-3114

F 02-397-3069

A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구독신청 홍보팀 T 02-397-3082~4

표지작품 Yarikart<Pink and white wild flowers>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조정·중재 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교육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분쟁해결 전문연수 과정과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창립 40주년 기념사

언론사람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언론중재위원장 이석형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981년 설립 당시 중재위원 39명, 사무처 직원 20명의 작은 조직이었으나, 40년이 지난 지금 중재위원 90명, 사무처 직원 약 100명이 일하는 곳으로 성장했습니다. 더불어 언론분쟁해결의 중추적 기구가 되었습니다. 설립 첫해 44건이던 조정사건은 지난해 3,924건으로 약 9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이후에는 코로나19 보도 관련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전담 중재부까지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법익 등의 침해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도 전부 13,000여 건에 이릅니다. 돌아보면 감회가 매우 새롭습니다.

이와 같은 위원회의 발전은 중재위원님과 사무처 직원들이 오랫동안 애써주신 결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이 우리 위원회를 아껴주시고 성원해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누구도 우리 위원회가 독립성, 전문성, 공정성을 가진 언론분쟁해결의 준사법적 중추적 기구임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각 중재부는 최고의 전문성과 높은 경륜을 갖춘 분들로 구성된 합의체로서 시시각각 접수되는 수많은 조정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무처 직원들의 수고와 협력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당사자와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고, 언론분쟁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국민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언론피해 예방과 구제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연구서 발간과 학술행사 개최 등을 통해 국민의 권리 향상과 언론법제 연구의 산실로도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위원회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발판으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걸맞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고 실천을 도모해야 할 시점에 와있습니다. 다양한 인터넷 기반 언론 매체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내고 예기치 못한 피해와 분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상 언론보도 피해는 현재진행형으로 끊임없이

지속되면서 급속히 확산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에 대한 실효적 대처 방안으로 현재 국회에서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의 새로운 도입과 중재위원 법적 상한 90명을 120명으로 증원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위 개정안 통과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가 변함없이 신속 공정하게 언론분쟁을 해결하고,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와 사랑을 받으며, 세계가 부러워하는 중추적 ADR 기구로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 함께 노력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언론사람 독자 여러분의 무한한 건승과 행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31일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이 석 형



위원회 40년사 한눈에 보기



1981년 서울사무소 현판식

1981

위원회 설립

중재위원 39명, 전국 13개(서울 4개, 지역 9개) 중재부 설치



1991년 위원회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정기총회

1991

위원회 창립 10주년



1996년 '개정된 언론중재제도' 주제로 개최된 정기세미나

1996

1996년 개정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중재위원 75명으로 증원, 서울제5중재부 신설



1987년 '선진사회와 언론중재' 주제로 개최된 충북토론회

1987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중재위원 70명으로 증원, 사무처 승격



2001년 위원회 창립 20주년 기념식

2001

위원회 창립 20주년



2005년 프레스센터 앞 위원회 간판석 설치

200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손해배상청구 도입, 조정대상
인터넷신문 포함. 서울제6중재부 신설



2011년 위원회 창립 30주년 기념식

2011

위원회 창립 30주년

200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 IPTV 조정대상 매체에 포함.
서울제7중재부 신설



2009년 개정 언론중재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4

국제 컨퍼런스 개최



2014년 국제 컨퍼런스 행사 모습



2021년 위원회 창립 40주년 기념식

2021

위원회 창립 40주년

위원회 40주년 축하 메시지

최홍운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 창립 40주년을 마음 다해 축하합니다. 설립 당시 연간 44건이던 조정건수가 지난해 3,924건으로 늘었고, 피해구제율도 2008년 이후 70%를 넘는 등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깊은 신뢰를 얻는 기관으로 우뚝 섰습니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중재한 각 중재부의 전문성과 노력이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인이나 언론사로부터 매일 날아드는 민원에 시달리면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사무처에 특별히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중재위원들과 사무처가 언론피해구제를 위해 힘써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사업에 더 치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박태경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언론 자유인가? 권익 보호인가?
중재는 말릴 것은 말리고 따질 것은 따지는 것
위원회는 넘쳐나는 뉴스 바다의 등대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 40주년을 축하합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난 40년 동안 언론중재위원회는 올바른 언론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의 기본권과 알권리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디어 환경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언론분쟁 및 인권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이유입니다. 민주적인 언론문화 증진을 위해 언론중재위원회가 더 깊이 고민하고, 노력해주시길 당부합니다.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분쟁 조정·중재기관으로서 민주적 언론문화 창달에 기여해왔습니다. 최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언론 개혁 법안이 발의되면서 왜곡된 정보로 인한 언론 피해를 구제하고 올바른 언론환경 조성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시기입니다. 지난 40년 언론중재위원회가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욱 건강한 언론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언론보도로 인한 갈등을 간편한 조정절차를 통해 비용 부담 없이 원만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치유하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달라진 언론환경과 사회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언론보도로 인해 침해되는 국민의 권익이 실효성 있게 구제될 수 있도록 위원회 모든 구성원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맡은 역할을 충실히 다해주시길 것을 부탁드립니다. 언론중재위원회 50년, 나아가 100년을 응원합니다.

양승찬 한국언론학회장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구제를 위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중재에 나서주신 언론중재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로도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면서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성숙한 언론 문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언론중재위원회가 우리 사회를 위해 크게 기여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승선 한국언론법학회장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현장에 계신 언론인에게는 숨 쉴 공간이 되어왔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는 고통을 호소할 수 있는 성소가 되어왔습니다. 지난 40년간 위원회는 이러한 어려운 과업을 훌륭하게 수행해왔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헌신과 열정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긴장을 잃지 않고 언론인들에게는 여전히 숨 쉴 공간을 제공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는 친근한 이웃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양승동 KBS 사장

자유란 책임을 전제할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책임의 범위를 정하고 그 안에서 자유와의 균형점을 찾을 때 자유가 더욱 가치 있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자유와 책임의 균형점을 찾는 역할, 바로 언론중재위원회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출범 40년을 맞은 지금 언론인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우리는 과연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의 질문과 질책이 더욱 늘어나는 때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그 현장에서 언론 자유와 책임의 균형점이 무엇인지 해답을 찾아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손석희 JTBC 사장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은 일반인들과 언론과의 관계를 잘 조정하고 연결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때로는 언론이 국민의 알권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따지고 보면 자사 이기주의와 연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냐 자사 이기주의냐 하는 점을 잘 가려내 조정해주는 것이 바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40주년을 맞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역할을 존중하는 한편, 언론피해구제를 위해 당사자 간 합리적 조정으로 언론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매체가 늘어나고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들이 출현하면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언론자유와 저널리즘의 가치를 존중하여 언론 발전에 큰 기여를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강풀 만화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창립 4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창작조차 현실에 기반합니다. 창작의 영역에 살면서 항상 현실을 검토했습니다. 현실에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섞여 있을 때, 누군가는 그 사실을 밝혀주고 중심을 잡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은 참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블로그 축하 메시지

이벤트 당첨자

이승혁

3월 31일 창립 40주년을 맞는 언론중재위원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해왔더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만큼 많은 관심을 받았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앞으로도 지금까지 걸어온 행보 그대로 이어나가며 더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더욱 발전하고 승승장구하는 언론중재위원회 되기를 응원할게요! 항상 꽃길만 걸길 바라며... 언제나 파이팅!

진수정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의 곁에서 함께 해오며 올바른 언론을 위해 활동해온 언론중재위원회가 앞으로도 좋은 활동과 함께 많은 분들의 더 큰 사랑과 믿음으로 더 승승장구하길 응원할게요! 언론의 밝은 미래를 위한 언론중재위원회의 활동들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40주년 축하드립니다!

잭나인

언론중재위원회 창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요즘 같이 정보가 넘쳐나고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가 보도되는 때에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국민과 언론의 눈과 귀가 되고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힘이 되는 언론중재위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양삼승 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의 존재 가치를 되새기는 40주년 되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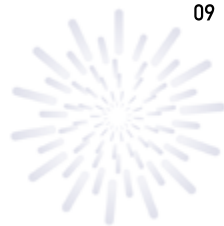
상황이었죠. 재밌는 점은 글의 내용은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것인데 글의 제목은 '정정보도청구'라고 쓴 겁니다. 법률상 반론권을 처음 도입한 언론기본법에서 반론권을 '반론보도청구'가 아닌 '정정보도청구'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만큼 반론보도청구가 모두에게 낯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독일, 프랑스 등 반론권 법리가 정착된 나라들의 자료를 하나하나 공부해가면서 힘겹게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그 뒤로도 국내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독일의 <AFP>라는 잡지에서 언론 관련 판례를 찾아 <언론중재>에 소개하는 일을 오랫동안 했는데 법원이나 위원회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독일어 실력이 좀 늘기도 했죠.(웃음)

Q 위원회 설립 근거가 된 법률 제정 참여, 정정·반론 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글 기고, 중재위원 및 선거기사심의위원장 활동 등 오랜 기간 위원회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하셨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국내 최초로 반론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언론중재>에 실었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국내에는 '반론보도'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했던

Q 위원회가 처음 설립된 1981년과 비교하면 위원회는 처리 사건 수나 조직 규모 면에서 크게 성장했는데요. 위원회가 40년간 발전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A 위원회가 가진 아이템의 힘이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반론권'은 언론사로 하여금 잘못된 사실을 정정하게 하거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보도 내용에 대해 다른 입장을 알릴 기회를 주는 권리죠. 즉, 언론의 자유를 침해



하기보다는 언론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해외 일부 언론사들은 반론보도 게재 지면을 의무적으로 할애하기도 하고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원회 설립 초기에는 시대적 상황 때문에 언론 탄압기구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는데 그 고비를 잘 넘기고 언론중재제도가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언론의 신뢰를 높이는 '반론권'을 발판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독립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양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법원 판사, 전직 언론인 등이 중재부에 참여하도록 한 것도 중요한 성장 요인이었다고 봅니다. 물론 중재위원들과 사무처의 노력이 바탕이 되었겠지요.

Q 반론권조차 생소하게 여겨졌던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정정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 다양한 피해구제 방법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언론피해구제의 측면에서 앞으로 필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A 반론보도에서 정정보도로 또 손해배상으로 점점 피해구제 방법이 다양해졌는데 그동안 위원회가 제 역할을 잘 해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터넷 매체 피해구제를 위해 논의되고 있는 기사열람차단청구권 등의 도입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봐요. 다만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 가는 것이 중요한데 언론과 국민 모두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새로운 방안들을 마련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 소개했던 독일 판결 중에 유명한 지휘자인 카라얀이 어느 잡지를 상대로 반론보도청구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쟁점은 카라얀이 원보도보다 더 많은 분량의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했는데 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당연히 언론사에서는 반론보도란 원보도를 반박하는 범위에 그쳐야지 그 이상을 넘는 것은 과도하다 주장했죠. 그런데 독일 법원은 물론 반론보도의 본래 취지는 원보도 범위 내에서 반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원문 기사를 추가적으로 세세하게 설명할 필요도 있을 수 있다면서

카라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최근 위원회에서 결정한 정정·반론보도문을 볼 때마다 보도문의 크기나 제목이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보도문의 분량이나 게재 위치, 제목 등이 제도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기사 경우, 설령 원기사가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원래 보도가 게재되었던 시간만큼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게재하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또 최근 가짜뉴스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보도는 가짜뉴스라고 불릴만한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 대해서는 고액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확실한 제재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합니다.

Q 언론중재법 시행 직후 제기된 위헌소송에서 정부측 변론을 맡기도 하셨는데요. 당시 상황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지요?

A 헌법재판소에서 많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긴 하지만 변론을 맡을 때 언론중재법이 위헌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확신했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결론이 그렇게 나와서 언론중재법에 규정된 내용들이 오히려 확실하게 헌법재판소에서 인정을 받은 셈이 되었지요. 여러모로 언론중재법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언론조정·중재제도가 정착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 위원회가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위원회 발전을 위한 제언 부탁드립니다.

A 위원회는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공감받을 수 있는 콘텐츠들을 이미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정말 피해구제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보다 확실한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나감으로써 언론중재위원회의 존재 가치가 부각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언론과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언론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꾸준히 해나가길 바랍니다.



빅테크(Big tech)는 왜 뉴스레터에 뛰어든다

트위터가 리뷰(Revue)라는 뉴스레터 플랫폼을 인수했다. 페이스북은 독립 기자들을 위한 뉴스레터 서비스를 내놓겠다고 한다. 국내에선 네이버와 카카오가 조만간 뉴스레터를 포함한 유료 구독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했다.¹⁾ 이제 '구독'은 유행어, '뉴스레터'는 필수재가 됐다.

빅테크(Big tech)들이 눈독을 들이는 첫 번째 파트너는 대부분 언론사거나 프리랜서 기자들이다. 전문 작가들도 적잖지만, 핵심은 저널리스트들이다. 특히 양질의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훈련된 인재로서 전문 저널리스트들은 뉴스레터 구독 경제 시대에 러브콜을 받는 대상이 되고 있다. 분야 전문성을 탄탄하게 다져온 틈새 미디어들도 주목받기만 찬가지다. 좁고 깊은 콘텐츠에서 발산되는 유익성의 가치는 독자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 트리거 포인트다. 유튜브가 증강된 개인들의 전성시대를 영상 기반으로 열어젖혔다면, 뉴스레터는 재능 있는 저널리스트들과 작가들을 빨아들여 텍스트 중심의 '프리랜서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빅테크(Big tech)의 뉴스레터 가세는 언론사 뉴스룸에는 원심력으로 작용한다. 뉴스룸 밖으로 빼내어가는 인력 말이다. 플랫폼이 보장해줄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수익 규모, 브랜딩, 강력한 마케팅 효과 등을 고려하면 낮은 급여를 감내하며 위계적 조직 안에서 저널리즘을 수행할 매력은 떨어진다. 혹여나 연 수익 원씩 벌어가는 성공 사례까지 등장하게 된다면 뉴스룸 밖을 결눈질하는 기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다. '기레기'라는 모멸적 조롱을 들으며 돌팔매질 당할 이유도 사라진다.

미국에선 이미 현실이 됐다. 대표적인 유료 뉴스레터 플랫폼인 서브스택(Substack)에는 더 버지(The Verge) 기자 출신의 케세이 뉴턴(Casey Newton), 전 뉴욕매거진 기자였던 앤드류 설리반(Andrew Sullivan), 버즈피드 출신의 앤 헬렌 피터슨(Anne Helen Petersen)에 이르기까지 기자 출신들이 즐비하다.²⁾ '스노든 폭로' 기사로 풀리처상을 받은 글렌 그린왈드(Glenn Greenwald)도 서브스택에 동지를 튼 지 오래다.³⁾ 서



브스택에서 이들 기자나 작가들에게 구독료를 지불하는 독자는 벌써 5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뉴스룸을 떠나 독립을 갈망하는 기자들의 행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연간 수익 원을 벌어들이는 작가들의 사례도 자주 회자된다. 미국 신문사들의 잇단 폐업과 해고 등에 힘입은 바 컸겠지만, 뉴스레터 구독 서비스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매력 이 이를 끌어올린 측면도 있다. 독립 저널리스트로서 지속 가능한 저널리즘 활동이 보장될 수 있는 경제적, 기술적 조건 이 성숙해 간다면 저널리즘 산업을 둘러싼 풍경이 빠르게 뒤 바뀔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간과해선 안 되는 질문이 한 가지 있다. 왜 플랫폼들이 독립 저널리스트들 혹은 능력 있는 작가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뉴스레터 플랫폼에 뛰어든가, 이다. 광고 수익에 혈안이 돼 각종 허위 정보를 방치했던 이들 플랫폼들이 느닷없이 구독 모델을 가져와 저널리스트들을 다시 품으려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잠시 시계를 2009년으로 돌려보자. 트위터와 페이스북, 구글 웨이브와 같은 소셜네트워크들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기 시작할 무렵,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메일 시대의 종언'을 선언했다.⁴⁾ 인터넷이 상업화된 1990년대 중반 이후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왕좌에 올라있던 이메일이 혁신적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로 인해 '낡은 소통수단'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그 뒤로 이메일은 '스팸받이'로 인식되며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질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역설적이게도 이메일을 다시 불러낸 건 트위터와 페이스북

이었다. 알고리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볼 것, 들을 것, 소비할 것 등을 통제하고 왜곡하자 사용자들은 알고리즘의 무풍지대를 찾기 시작했다. 전적으로 사용자와 직접 만날 수 있는 공간, 알고리즘의 바람이 가장 적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찾다 결국 이메일에 안착하게 된 것이다. 뉴스레터의 부흥은 이러한 맥락 안에서 파악할 때 보다 초점이 또렷해진다.

빅테크(Big tech)들의 뉴스레터 진출은 그래서 곱게 보기 어렵다. 그들만의 '갇힌 정원'에서 벗어나려는 힘이 강해지자, 그 리하여 포획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가 제한되자, 재포획을 위한 유인책으로 뉴스레터를 내놓아서다. 여전히 빅테크(Big tech)들은 뉴스레터조차도 그들의 플랫폼 안에서 짜여진 포맷대로 제작할 것을 강제한다. 다시금 그들의 앱 안으로 회귀해줄 것을 요청한다. 이메일을 역사 속에 묻으려 했던 그들이 10여 년 만에 극적으로 살아 돌아온 이메일에 밀리기 시작하자 급히 내놓은 응급처방 같은 것이다.

독립 저널리스트들의 활동 환경이 넓어지는 건 환영받을 일이다. 더 다양한 목소리들이, 깊이와 전문성을 담아 더 명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건강한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어서다. 또 조직 논리에 갇혀있던 개별 저널리스트들의 다양한 관점과 전문성이 지속가능한 수익 구조 안에서 발현될 수 있는 계기를 얻을 수 있어서다. 이 같은 절호의 기회, 새롭게 맞이할 독립 저널리스트들의 황금시대를 다시금 플랫폼에 넘겨주는 것이 생태계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진정한 독립은 독자와의 접점을 통제해왔던 알고리즘으로부터의 해방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1) <https://www.reuters.com/article/us-facebook-newsletter-idUSKBN2B82IA>

2) <https://www.nytimes.com/2020/09/23/business/media/substack-newsletters-journalists.html>

3) <https://www.nytimes.com/2020/10/29/business/media/glenn-greenwald-leaving-intercept.html?action=click&module=RelatedLinks&pgtype=Article>

4) <https://www.wsj.com/articles/SB10001424052970203803904574431151489408372>

우리가 좀 더 예민해져야 하는 이유



제인 엘리엇은 1968년, 초등학교 3학년인 백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가지 실험을 하였다. 그녀는 반 아이들에게 의도적으로 거짓된 정보(갈색 눈을 가진 사람이 파란 눈을 가진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우월하다)를 주었다. 그리고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만 교실 앞자리에 앉히고 새로 만든 정글짐을 이용하게 해주었다. 그러자 교실에는 변화가 생겼다. 파란 눈의 아이들은 소극적이 되었고 그 전에는 쉽게 풀었던 수학 문제도 맞지 못했다. 갈색 눈의 아이들은 파란 눈의 아이들을 무시하기 시작했다. 제인 엘리엇이 이 실험을 했던 1968년은 마틴 루터 킹이 사망한 해였는데, 그녀는 백인 아이들에게 흑인으로서의 경험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다. 제인 엘리엇은 10살 아이들에게 너무 가혹한 실험이라는 비판에 대해 “백인 아이가 몇 시간 동안 경험하는 차별에 대해 걱정한다면, 평생 그런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흑인 아이에 대해서는 왜 그리 침묵하느냐?”라고 단호하게 답변했다고 한다.¹⁾

위 내용은 김승섭의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책에서 읽은 것이다. 김승섭은 의대를 졸업하고 현재는 사회역학자로서 차별경험이나 고용 불안 같은 사회적 요인이 성소수자, 비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의 건강을 어떻게 해치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이 책은 이와 관련한 국내외 연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동성 결혼 금지 법안이 통과된 미국의 특정 주에서는 성소수자의 불안장애 유발률이 법안 통과 전에 비해 증가하고, 동성 관계를 보호하는 법이 제정된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성소수자의 성적 지향 공개 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나는 사실을 알려준다.²⁾ ‘정력로운 건강을 찾아 질병의 사회적 책임을 묻다’라는 책 표지에 있는 문장은, 이 책의 주제를 정확히 관통한다. 그는 “더 약한 사람들이 더 위험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더 자주 아프다.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소득 없는 노인이, 차별에 노출된 결혼이주여성과 성소수자가 더 일찍 죽는다.”고 말한다.

이 책은 여러 지점에서 흥미로웠다. 먼저, 사회적 차별에 대해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랬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개인적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는 많이 보았지만, 이와 같이 사회역학의 관점에서 집단의 건강을 다룬 정리된 연구를 책으로 읽은 것은 처음이었다. 사람은 누구든, 어떤 상황에서든 헌법상의 고유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당연한 생각이 이 책을 만나 더 단단해지고 분명해졌다. 언젠가 링컨의 위인전을 읽은 딸아이와 ‘차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딸아이는 “엄마, 차별은 왜 나쁜 거야?”라고 물었는데, 나는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해야 되거든.”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여덟 살 딸아이에게 선명한 인상을 남기지 못한 듯 보였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니 딸아이에게 답을 보태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차별받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 수 없거든.”이라고 말이다. (아무리 건강을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딸아이에게 가장 강력한 설득이 될 것이다. 우리는 자주 당연하고 오래된 명제보다 실제로 일어난 팩트, 그 자체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

또 이 책을 읽으며 정말로 오래 간직하고 싶다고 생각한 감정은 ‘저자에 대한 존경심’이었다. 실로 오랜만에 느끼는 ‘타인에 대한 존경심’이었다. 오랜만인 까닭은 내가 꽤 많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부끄럽게도 요 몇 년간 ‘내가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책을 읽는 동안 나는 내내 저자와 나를 비교했고 절망했고 부끄러웠다. 하지만 워낙에 잘 잊어버리는 인간이라 책을 읽고 몇 달이 지난 지금은 다시 예전과 똑같이 살고 있다. 이 글을 쓰며, 몇 달 전에 메모해둔 구절을 꺼내 다시 읽어 보았다. 저자는 “아름다운 사회는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타인의 고통에 대해 예민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그래서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자신의 자존을 지킬 수 없을 때 그 좌절에 함께 분노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저자는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나는 생각하는 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 게으른 탓인 것을 부인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 이유를 대는 것을 허락한다면, 엄마 손이 필요한 어린 아이들도 있고 돈도 벌어야 한다(고 애써 말하고 싶다). 하지만 겨우 이 정도의 허들 때문에, 생각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역시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접한 변희수 하사의 죽음은 더욱 가슴 아픈 것이었다. 감히 그녀의 삶을 생각해 본다. 그녀는 삶의 ‘방식’을 넘어 존재, 자체에 대한 거대한 허들이 있다고 느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반비 전 편집장 김희진은 페이스북에 “내가 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고 편안한 사람들이 있고 내가 되는 것이 마냥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다. 나와 세계의 구조가 전혀 불화하지 않고 평화로운 사람들이 있고 나와 현재의 세계가 끝없는 전쟁인 사람들이 있다.”라고 남겼다.³⁾

그녀와 세상과의 불화는 우리들 탓이었다. 우리가 예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타인의 고통에 예민했다면, 군은 강제전역 결정을 하지 못했을 것이고,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지 않았을 것이며, 언론은 좀 더 의미 있는 보도를 했을 것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낸 ‘트랜스젠더 혐오표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참여자의 87.3%는 지난 12개월 동안 언론에서 트랜스젠더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몇 년 전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은 유명 방송인 관련 보도에서 언론은 마약 혐의보다도 그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더 이슈화시켰고, 작년 모 클럽에서 발생한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는 이 클럽이 동성애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클럽이라는 사실이 더 강조됐다. 이러한 둔감함을 법으로 재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소수의 고의보다 다수의 둔감함이 사회를 더 불평등하고 아름답지 못하게 만드는 사실은 분명하다.

“
차별받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 수 없거든.”

1) 김승섭(2017). 『아픔이 길이 되려면』(전자책). 동아아시아, 263~266면.

2) 앞의 책, 218~222면.

3)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4122838064395131&id=100000069352458

어느 시인의 귀향 소감

<회향우서(回鄉偶書)>
고향에 돌아와 우연히 쓰다
당(唐) 하지장(賀知章, 659-744)

少小離家老大回, 소소이가노대회
젊어서 집 떠났다가 나이 들어 돌아오니
鄉音無改鬢毛衰, 향음무개빈모쇠
고향 말투는 그대로인데 귀밑머리는 세었다.
兒童相見不相識, 아동상견불상식
아이들은 나를 보고 알아보지 못하고
笑問客從何處來, 소문객종하처래
웃으며 묻기를 “손님은 어디서 오셨나요?”라고 한다.

소소(少小) : 어리다, 젊다
향음(鄉音) : 고향 말투, 고향 사투리
빈모(鬢毛) : 귀밑머리, 살쩍
상(相) : [부사] 서로(예 : 相助-서로 돕다, 相反-서로 어긋나다)
[대명사] 상대방을(예 : 相思-상대방을 그리워하다)
상대방에게(예 : 相續-상대방에게 이어 주다)

하지장은 당나라 현종 시기의 문인이자 정치가로 예부시랑, 태자 빈객, 비서감 등의 높은 관직을 지냈다. 자는 계진(季真)이고 호는 사명광객(四明狂客)이다. <구당서·하지장전>에, “만년에 더욱 방종이 심해져 더 이상 규범에 얽매임이 없었다. 스스로 호를 지어 ‘사명산의 자유분방한 사람[사명광객(四明狂客)]’이라고 했다.(晚年尤加縱誕, 無復規檢. 自號四明狂客.)”라고 기록한 것처럼, 구애되는 것이 없었고 술을 좋아했다. 두보가 <술을 마시는 여덟 신선의 노래(飲中八仙歌)>에서 그를 맨 먼저 언급하여, “하지장은 말을 타면 배를 탄 듯이 흔들렸고, 눈이 몽롱한 채 우물에 떨어져 물 바닥에서 잠들었네.(知章騎馬似乘船, 眼花落井水底眠.)”라고 했듯이 많은 기행과 일화를 남기고 있다.

위의 시는 시인이 젊어서 고향을 떠나 벼슬살이를 하다가 86세에 관직을 그만두고 돌아온 뒤 그 감회를 읊은 시이다. 시의 첫째 구는 오랜 객지 생활에 대한 애환과 이제 늙어버린 자신에 대한 감개가 스며있다. 둘째 구에서는 변함없는 사투리와 변해버린 귀밑머리를 대조함으로써 인생에 대한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셋째와 넷째 구에서는 아이들의 천진난만함을 통해 무상감을 달관과 유머로 승화시키고 있다. 아이들의 물음에 그 익숙하던 고향이 갑자기 낯선 땅이 되고, 주인이 객이 되었다. 벼슬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귀향할 때에는 현종이 직접 전송의 잔치를 마련해줄 만큼 금의환향했음에도 무상감은 어쩔 수 없다. 아이들의 질문에 “허허!”하며 헛웃음을 짓는 시인의 모습이 연상된다.

질문만 제시하고 대답이 없는 상태로 시를 마무리했다. 이 가운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뜻이 있다. 이를 일러 “뜻이 말의 밖



에 있다[의재언외(意在言外)].”라고 한다. 북송의 매요신(梅堯臣)이, “묘사하기 어려운 경치를 잘 그려내어 눈앞에 있는 듯이 하고, 다 드러낼 수 없는 의미를 잘 머금은 채 말의 밖에 나타내야, 그런 뒤에 지극하게 된다.〔能狀難寫之景，如在目前，含不盡之意，見於言外，然後爲至矣.〕《송사·문원전(文苑傳)》》”라고 했듯이, 뜻을 말의 그 너머에 함축시키는 시가 최상의 시다. 하지장의 이 시가 그렇다.

또한 아이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서운함 가운데 천진난만한 아이들에 대한 애정도 느껴진다. 담담함 속에 존재하는 복잡한 심사를 달관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겠다.

하지장에 관해서는 이백과 처음 만났을 때의 일화가 유명하다. 당나라 맹계(孟榮)의 《본사시(本事詩)·고일(高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전해진다.

이태백이 옛날에 촉에서 장안에 이르러 여관에 머무는데, 하지장이 그의 명성을 듣고 맨 먼저 찾아왔다. 이태백의 용모를 보고 범상치 않게 여기더니, 다시 지은 글을 보자고 했다. 이백이 <촉으로 난 길이 험하다(蜀道難)>라는 시를 꺼내 보여주자 다 읽기도 전에 여러 차례 감탄하면서 ‘선계에서 귀양 온 신선[적선(謫仙)]’이라고 호를 지어 주었다. (자신이 차고 있던) 금 거북 장식을 풀어 술을 사다가 함께 마시고 대취했다.(李太白初自蜀至京師，舍於逆旅，賀監知章聞其名，首訪之。既奇其姿，復請所爲文。出蜀道難以示之，讀未竟，稱歎者數四，號爲謫仙。解金龜換酒，與傾盡醉.)

하지장이 세상을 떠난 뒤에 이백은 <술을 대하고 하 비서감을 그리워하다(對酒憶賀監)>라는 시에서 그와의 인연을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추모하고 있다.

四明有狂客， 사명산에 자유분방했던 사람 있었으니
風流賀季真. 풍류를 지녔던 하지장이라네.
長安一相見， 장안에서 한 번 보고는
呼我謫仙人. 나를 선계에서 귀양 온 신선이라 불렀지.
昔好杯中物， 그 옛날 술을 좋아했는데
今爲松下塵. 지금은 소나무 아래 진토가 되었구나.
金龜換酒處， 금 거북 장식으로 술을 사와 마시던 곳
卻憶淚沾巾. 돌이켜 생각하니 눈물이 수건을 적시네.

이 시는 아마도 이태백이 하지장의 무덤을 찾아가 지은 시인 듯하다. 자신을 알아주었던 지기(知己) 하지장에 대한 그리움이 간절하다.

당나라 초기의 시인인 왕발(王勃)은, “이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이가 살아 있으면, 하늘 끝이라도 이웃에 있는 것과 같으리.〔海内存知己，天涯若比隣.〕<촉주로 부임하는 두 소부를 전송하며(送杜少府之任蜀州)>”라고 읊었다. 그런 사람이 이미 가고 없으니, 호방한 이태백도 눈물로 수건을 적셨다.

봄날이어서 가능한 비현실의 꿈길

이런 봄날

김형영

—
날씨 화창하여 몸 늘어지니
갈 길도 늘어져
나는 나를 걷어치우고
무엇에 홀린 듯 꿈길을 간다.

허공을 열고 나와
하늘의 춤을 추던 나비
내 어깨 위에서 나인 듯 따라 출고,

산들바람 남실바람은 나비와 어우러져
불다 날다 불다 날다
제 세상 만난 듯 논다.

몸 두고 떠나는 여행
이런 봄날 아니면 언제 맛보리.
길이 아니면 어떠랴.
길이 없으면 또 어떠랴.

- 『나무 안에서』(문학과지성사, 2009)에서



김형영(1944~2021) 시인은 봄에 관한 시를 많이 창작하였습니다. 시인들마다 특별히 마음이 가는 세계가 있다면 김형영 시인에겐 그중 하나가 바로 '봄'입니다.

<봄, 일어서다>, <봄바람>, <그래도 봄을 믿어봐>, <봄나비처럼>, <봄·봄·봄>, <화살시편 8 : 봄>, <화살시편 26 : 봄날> 등과 같은 작품이 봄을 노래한 그의 대표작입니다.

봄은 한 해의 시작이며 죽음과도 같은 겨울날이 실은 영원하지 않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교훈의 시간이자 지혜의 텍스트입니다. 봄이 다가옴으로써 사람들은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고, 이 땅이 그렇게 가혹하고 난처한 곳만은 아님을 느끼며 새로운 생의 계획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런 봄이 너무나도 반가워서 사람들은 '봄'이라고 단음(單音)을 내는 데 그치지 않고 '봄봄'이라고 반복하여 리듬을 만들어내고, 그것도 부족해서 김형영 시인의 봄 시 가운데 한 편처럼 <봄·봄·봄>이라고 세 번씩이나 반복하며 삼박자의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봄은 발산하며 상승하는 확산과 분출의 계절입니다. 이 계절에 우리는 누구나 조금씩 흥분하게 되고 찬탄과 감동의 시간을 이전보다 많이 갖게 되며, 현실조차 슬그머니 놓아버리고 싶은 비현실의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고 있는 이 달의 작품 <이런 봄날>에도 이와 같은 봄의 상념이자 심리상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시인은 제1연에서 너무나도 화창한 봄 날씨에 취하여 자신조차 잊어버리고 무엇인가에 홀린 사람처럼 '꿈길'을 가는 자신의 모습을 전합니다. 그리고 제2연에서는 이런 꿈길을 가는 자신의 길 위에 역시 봄을 맞이하여 허공을 열고 나온 나비가 춤추며 동행하는 모습을 그려 보입니다.

이런 시인의 꿈길은 제3연에 이르러 보다 화려해집니

다. 산들바람과 남실바람이 등장하고 그 바람들이 춤추는 나비와 어우러져 "불다 날다 불다 날다" 자신들은 물론 갈 길조차 잊은 듯이 제 모습 그대로 봄 속에서 유유자적하며 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런 환희로운 장면에서 제4연에서와 같은 초탈한 경지의 고조된 의미를 읽고, 터득하고, 전달합니다. 봄날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처럼 제 존재를 잊고 떠나는 여행의 참맛을 어떻게 맞볼 수 있겠느냐고, 봄날에 비로소 우리는 제 존재를 잊음으로써 몰아(沒我)와 같은 꿈길을 걸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봄엔 모든 사람들에게 '봄바람' 같은 바람의 기운이 감돌고, 그것은 무겁고 답답하고 왜소하기만 했던 지상에 있는 우리들의 현실을 잠시나마 잊고 해방과 해탈의 가벼움과 활달함을 맛보게 해줍니다.

그런 해방과 해탈의 가벼움과 일탈을 시인은 마지막 연인 제4연의 뒷부분에서 잠언과도 같은 신선하고 충격적인 말로 전합니다. '길이 아니면 어떡냐고', '길이 없으면 또 어떡냐고' 해체와 부정의 어법을 사용하면서 그는 지상의 인간적인 길의 중력에 매여 노심초사하며 사는 우리들을 자유의 지대로 안내합니다.

길을 버리는 일, 길을 부정하는 일, 그럼으로써 길이라는 말을 아예 잊어버리는 일, 그렇기에 모든 길이, 길이 될 수 있는 기적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길의 참뜻은 몇 배나 상승하며 깊어지고 풍요로워집니다.

김형영 시인은 봄날을 맞이하여 이런 길의 사유와 철학에까지 도달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독자인 우리들도 잠시나마 '길'의 당위성과 무게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길'이라는 말조차 잊은 자리에서 봄을 마음껏 향유하게 합니다. 이것이 선물처럼 다가온 봄과 우리들이 일체가 되어 만나는 상춘(賞春)의 시간일 것입니다.

너와

그 증세가 처음 나타났을 때 너는 비행기 안에 있었다. 잔잔한 기류 속을 평화롭게 날아가는, 두 시간 남짓한 짧은 비행이었다. 눈앞이 흐릿해 지나 싶더니 목 안쪽이 바싹 마르고 곧이어 호흡이 가빠졌다. 당장 비행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너의 정신이 미쳐 날뛰는 동안, 너의 이성엔 갑작스러운 이상 증세에 대한 이유를 찾느라 분주해졌다.

가장 먼저 떠올린 단어는 트라우마였다. 의학에서는 외상을 의미하나 심리학에서는 정신적 외상을 가리키는 이 말은 '상처'라는 의미의 그리스어 트라우마트(Traumat)에서 유래하였다. 과거에 경험했던 위기나 공포와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당시의 감정을 다시 느끼면서 심리적 불안을 겪는 증상이다. 하지만 열 시간이 훌쩍 넘는 장거리 비행을 수십 번 하면서도 네가 공포를 느낀 적은 없었다.

어쩌면 과도한 상상력의 발로일지도 모른다고 너는 생각했다. 상상력은 대체로 네게 좋은 쪽으로 작용해왔을 뿐 아니라 그 능력을 빼앗긴다면 너는 당장 먹고 살 도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생각의 가지는 제멋대로 뻗어나가는 것이어서, 가지들이 얽히고설키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는 것을 막을 방도는 없었다. 이를테면 비행기는 너를 멋진 곳으로 데려다주기도 하지만 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 어쩌면 영원히 알지 못할 이유로 - 추락하거나 폭발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네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일까. 삶이 더이상 지속되지 않는 것, 존재가 무(無)로 변하는 것, 무엇보다 까마득히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공포일까. 그러나 네 삶은 매달리고 집착할 만큼 뜨겁지 않아니 한낱 먼지가 되어도 한을 품을 일은 없었다. 죽음은 네게 공포보다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오묘한 명제였다.

심장박동 증가, 호흡곤란, 식은땀, 손발 떨림이 한꺼번에 들이닥쳐 너를 통째로 흔드는 동안 너의 이성엔 아고라포비아라는 용어를 찾아냈다. 아고라는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인 폴리스에 있던 광장으로, 민회와 재판과 상업과 사교 같은 일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시장'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다가 '사람이 모이는 곳', '사람들의 모임'이 되었다. 포비아는 어떤 상황이나 대상을 필사적으로 피하려는 증상이다. '객관적으로 볼 때 위험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은'이라는 전제가 그 앞에 붙어 있다. 특정한 동물, 어둠이나 천둥소리, 높은 장소, 밀폐된 공간에 대해 과잉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아고라포비아, 즉 광장공포증은 어딘가 결이 달라 보이지만 밀실 공포와 광장공포는 '마음을 먹은 즉시 그곳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공간'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중에서 비행기는 최악일 것이다.

두려움 공(恐)은 굳을 공(圀)과 마음 심(心)이 만나 만들어졌다. 께



은 흙을 다지는 도구인 달구를 들고 땅을 내리치는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여기에 心이 더해져 ‘달구로 심장을 내리치다’는 의미가 되었다. 무엇이 심장을 내리치는가. 언젠가 겪어본 혹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무서운 일이 삶을 내리친다. 그로 인해 존재가 송두리째 흔들리리라는 예감으로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뛰고 숨이 가쁘고 식은땀이 나고 온몸이 떨린다. 그토록 두려운 ‘공’에 두려울 포(怖)가 결합한 것이 공포다. 존재가 소멸하면 그걸로 그만이지만, 살아서 맞닥뜨리는 공포는 현재진행형인 동시에 과거 어딘가에 존재하는 무시무시한 경험을 떠올리게 하고, 최악의 상황이 거듭될 수 있는 미래를 포함하고 있다. 두려움에 두려움이 더해져 육체와 영혼을 포식하고 그것을 에너지 삼아 증식한다.

네가 그런 사념에 골몰하는 사이 비행기는 안정적으로 착륙했고 밖으로 나가는 문이 열렸다. 동시에 너의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한 번 공포를 맞본 너의 심장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언제 다시 들이닥칠지 모르는 무형의 적과 싸울 방법은 없다. 인간힘으로 가까스로 떠올린 하나의 문장은, 요코야마 히데오의 소설 <클라이머즈 하이> 속에 있었다.

‘밥을 먹고 나면 무섭지 않다.’

머뭇머뭇 걸음을 옮겨 쿠로가와에 도착한 너는 처음 만난 레스토랑으로 들어갔다. 정결한 에이프런을 입은 노부인에게 받아든 메뉴에서 제일 위에 있는 세트 정식을 주문했다. 요리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도 없었고 상관도 없었다. 디저트까지 말끔하게 비우고 나자 비로소 네가 직면한 공포의 얼굴이 보였다. 피할 수 없는 삶, 그 속에 뿌리를 뽐고 네 심장을 내리치고 있는 건 사람이었다. 너를 싫어하는 사람, 너를 좋아하는 사람, 네가 미워하는 사람,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절망과 희망으로 위협하고 위로하고 있었다. 흔들리고 휘둘리며 표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너의 인생이었다.

수많은 사람의 얼굴들이 어지러이 명멸하는 사이, 네 뺨속에 든든하게 자리를 잡은 밥이 명령했다. 그만 생각을 멈추라고. 맞서 싸울 수는 없어도 견딜 수는 있을 거라고. 오늘의 공포는, 두려움은, 고뇌는 이것으로 충분하고 넘친다고. 그 안에서 멈칫거리며 싹을 틔우는 희망을 품고 다시 걸음을 옮기라고.

movie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빛과 철’

■영화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희주’(김시은)는 오빠 부부가 살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온다. 결혼 전에 다니던 공장에서 다시 일하기 위해서지만 남편의 사고가 근처에서 있었던 터라 마음이 편하지는 않다. 사후처리를 맡았던 오빠는 다 해결된 일이라며 잊으라 해도 희주는 남편의 과실로 아직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남자와 가족들에 대한 죄의식을 지울 수 없다. 같은 공장에 다니는 피해자의 아내 ‘영남’(염혜란)이 그녀에게 잘해주는 것도 버겁게만 느껴진다. 그런데 희주의 정체를 아는지 모르는지 영남의 딸 ‘은영’(박시후)이 그녀 주위를 맴돌더니 충격적인 말을 흘린다. 그날, 아빠는 자살하려 했다고.

그 때부터 희주에게 이 사건은 재구성되기 시작한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경찰과 변

Black light

호사를 찾아다니고, 처음으로 제대로 대면한 영남에게도 분노를 쏟아낸다. 영남의 남편이 교통사고 이전에 이미 거동을 잘 못하는 상태였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자 희주는 은영의 말에 더 확신을 가진다. 희주의 과격한 행동들은 남편이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라기보다 부채감으로 괴로워했던 시간에 대한 자기 보상에 가깝다. 그녀에게 진실이 중요한 이유는 자신이 떳떳해지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날의 진실을 알려고 하면 할수록 새로운 정황들이 드러나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든다. 분명한 것은 이 곳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희주는 남편에 대해서도, 그날 일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다. 죽은 남편은 말이 없다.

영남은 오랜 병간호와 생활고로 지쳐 있다. 공장에서 만난 희주에게만큼은 잘해주려고 노력하던 중 딸에게 남편이 자살하고 싶어 했다는 말을 뒤늦게 듣고 경악한다. 상대방이 음주 상태였음을 아는 영남은 남편이 가해자가 아니라고 확신하면서도 몸이



불편한 그가 갑자기 차를 끌고 나간 이유에 대해 해명할 수 없다. 몇 년 전, 산업재해로 남편의 몸이 완전히 망가졌는데도 책임지지 않으려 했던 공장측과 동료들에 대한 원망만 시간만큼의 무게로 가슴 속에 커켜이 쌓여 있는 상태다. 뇌사상태의 남편은 말이 없다.

배종대 감독의 첫 장편 연출작, '빛과 철'은 '씨민과 나데르의 별거'(2011), '아무도 머물지 않았다'(2013), '세일즈맨의 죽음'(2016) 등으로 유수의 영화제에서 주목받은 아쉬가르 파라디 감독의 스타일을 떠올리게 한다. 파라디 영화의 여러 인물들은 각기 자신만의 좌표에서 한 사건을 불완전하게 조망하는데, 이들이 알고 있는 단편적 사실들이 퍼즐처럼 짜 맞춰지면서 비로소 그 형체가 명확해진다. 그런데 그 과정이 만만치 않다. 처음에 공깃돌만 해 보였던 사건은 이런저런 정황들이 보태지면서 바위만큼 커진다. 그것은 사건 관계자들 각자가 감추고 싶어 했던 이기심과 욕망의 부피이기도 하다. '빛과 철'의 서사도 유사하다. 희주, 희주 오빠 부

부, 영남, 은영, 공장 사람들까지 가슴 속에 숨겨둔 것들을 말하기 시작하자 사건은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결국 희주와 영남은 어쩌면 몰랐다면 더 좋았을 사실까지 알게 되는 고통을 맛본다. 그런데도 끝까지 사고에 대해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사고의 당사자들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영남과 희주가 서로의 목을 조르는 클라이맥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하는 두 사람의 두려움과 더불어 더이상 진실에 다가갈 수 없는 답답함과 좌절감을 잘 보여준다.

영화는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들추어내면서 관객들에게 진실의 속성에 대해 질문한다.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 진실이 아니다. 그러나 증거 자료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사고 당시 그 자

리에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만용이 허락된다. 영남과 희주의 몸싸움은 그 위험한 믿음이 첨예하게 부딪친 결과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자신이 틀렸을지 모른다는 공포심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다

는 사실이다. 영화는 마지막 장면에서 또 하나의 의혹을 제기하며 다시 한 번 두 사람을, 아니 관객 전부를 미궁 속에 빠뜨린다.

미디어 플랫폼이 늘어나면서 누구나 1인 언론을 자처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장점도 많지만 일부 무책임한 호사가들 때문에 대중들은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을 걸러내야 하는 과제를 떠안고 있다. 정말 진실을 원한다면 먼저, 내가 안다고 믿는 것들에 대해 계속 의심하고, 나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자 하는 관성을 끊어버린 후, 나와 다른 입장에 있는 이들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그것은 때로 희주와 영남, 은영에게처럼, 충격과 고통이 뒤따르는 작업이 될 것이다. 진실은 결코 동화처럼 낭만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균형 있는 사고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빛과 철'은 대사에 여러 번 삽입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건을 나름대로 규정하기 전에 '아무도 모르는 거야'라고 전제할 줄 아는 겸손함을 가르쳐준다. 각 인물들의 상황과 감정에 대한 몰입감이 높은 작품이다.

위원회 뉴스



위원회 창립 40주년 기념 전문가 좌담회 개최

위원회는 3월 4일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언론중재위원회 40년 역사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제정임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좌담회는 박용상 전 언론중재위원장, 김용주 전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 강영수 인천지방법원장, 박홍기 서울신문 편집이사,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가 참석해 언론중재제도의 발전 과정을 돌아보고 실효성 있는 언론분쟁 해결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좌담회 상세 내용은 계간 <언론중재> 2021년 봄호(3월 30일 발간)에 수록되었다.



위원회 창립 40주년 기념식 개최

위원회는 3월 30일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기념식 행사는 위원회 임원, 사무처 간부, 유공직원 포상 대상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중재위원 및 사무처 직원들은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으로 참여했다.

*40주년 유공직원 명단 : 김승아(접수상담팀), 김이영(경남사무소), 김정연(심의1팀), 양지은(총무팀), 윤은자(홍보팀)

위원회 변호사 조력 사건 조정심리 진행

위원회는 지난 3월 9일 변호인 조력을 통한 조정사건 심리를 진행했다. 해당 사건은 상담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대한변호사협회 자문변호사를 통한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이루어졌다. 위원회는 지난 2019년 4월 대한변호사협회와 언론조정·중재제도를 이용하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법률 조력을 제공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위원 동정

신임 중재위원 위촉

2021. 3. 8.자로 중재위원 12명(서울 3명, 지역 9명)이 위촉되었다.

중재부	성명	주요 경력	임기
서울제1중재부	이기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21. 3. 8. ~ 2021. 8.31.
서울제2중재부	강광배	한국체대 체육학과 교수	2021. 3. 8. ~ 2024. 3. 7.
서울제7중재부	정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21. 3. 8. ~ 2023.11. 8.
부산중재부	박형준*	부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21. 3. 8. ~ 2021. 8.31.
대구중재부	한재봉*	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21. 3. 8. ~ 2021. 8.31.
광주중재부	정재규*	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21. 3. 8. ~ 2021. 8.31.
경기중재부	남궁덕	포항공과대 대우교수	2021. 3. 8. ~ 2024. 3. 7.
강원중재부	견종철*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재판장	2021. 3. 8. ~ 2021. 8.31.
충북중재부	원익선*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21. 3. 8. ~ 2021. 8.31.
경남중재부	전지환*	창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21. 3. 8. ~ 2021. 8.31.
제주중재부	송현경*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21. 3. 8. ~ 2023. 3.30.
	고창범	(전)제민일보 논설위원	2021. 3. 8. ~ 2024. 3. 7.

*표시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임

키 워 드 로 보 는 4 0 년 사

어린이 홈페이지



언론중재위원회에 어린이를 위한 홈페이지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어린이 언론중재교실'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어린이 홈페이지는 2007년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사회교과서에 언론중재위원회 관련 내용이 수록된 것을 계기로 제작되었습니다. 교과서에서 위원회를 만났던 초등학생들은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되어 있겠죠?

자금은 어린이 홈페이지 대신 언론중재위원회 온라인 강의실(edu.pac.or.kr)을 통해 '청소년을 위한 오보로 보는 미디어' 등의 강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위원회는 어린이·청소년들이 언론조정·중재 절차를 통해 미디어와 언론분쟁해결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언론중재스쿨 프로그램은 지난해 서울특별시교육감 표창을 수상하는 한편, 교육부의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 공식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 세대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선도하는 위원회 교육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